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분석

1. 출제 경향

① 총평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의 체재를 기본으로 하면서,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EBS 교재가 직·간접으로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유사하였다. 화법은 2문항으로 구성된 지문 2개와 1문항으로 구성된 1개의 지문이 출제되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체재가 거의 동일하였다. 작문은 2개의 지문으로 5문항을 구성하여, 3개의 지문으로 5문항을 구성했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문법은 5문항 모두가 EBS 교재와 연계되었는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교재에 실린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기보다는 이론을 정리한 부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독서에서는 총 5개의 지문이 출제되었는데, 사회 지문과 예술 지문을 제외하고 3개의 지문이 EBS 교재와 연계되었다. 지문의 연계 방식은 지문을 그대로 옮겨오기보다는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지문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연속적으로 출제되었던 독서 이론 부분이 출제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문학에서는 총 5작품이 출제되었는데, 현대소설 전광용의 <꺼삐딴 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되었다. 특히 EBS 교재에 수록된 부분에서 지문을 구성하여 체감 연계가 높은데다가 문항의 답지 내용 요소, 문항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도가 더욱 높았다.

* 출제경향 특징 3가지

- 하나. 화법, 작문, 문법의 기본 체재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었다.
- 둘. 독서의 경우 EBS 교재에 수록된 지문의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 셋. 문학의 경우 EBS 교재에 수록된 부분에서 지문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문항에서도 EBS 교재에 수록된 문항의 아이디어와 답지의 내용 요소를 활용하여 체감 연계도가 매우 높게 출제되었다.

② 국어 A형 (세부 출제 경향)

1) 화법

‘수업 시간에 발표’, ‘대답’, ‘친구 간의 대화’가 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친구 간의 대화’ 지문이 A형과 B형에 공통으로 출제되었다. 이것은 ‘수업 시간에 발표’, ‘라디오 대답’, ‘친구 간의 대화’가 지문으로 구성되고, ‘친구 간의 대화’ 지문이 A형과 B형에 공통으로 출제되었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수업 시간에 발표’(1, 2번 문항)는 발표 전의 준비(1번 문항)와 발표에 대한 반응(2번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렇게 1번 문항과 2번 문항을 발표 계획과 발표 내용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뿐만 아니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대답 지문(3번 문항)은 대답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고, 친구 간의 대화 지문(4, 5번 문항)은 화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요소를 묻는 문항으로 설계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보기>의 조건에 따라 발화 내용을 창작하는 문항을 설계하여 창의성을 평가하였다. 화법은 기본적으로 지문 구성이라든지 문항 설계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작문

작문 상황에 따른 개요 작성, 자료의 활용 방안, 조건에 맞는 표현, 글쓰기 전략, 고쳐 쓰기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글쓰기 전략과 고쳐 쓰기 문항이 A형과 B형에서 공통으로 출제되었다. 이것은 작문 상황에 따른 글쓰기 구상, 글쓰기 계획의 구체화, 조건에 맞는 표현, 글쓰기 전략, 고쳐 쓰기 문항으로 구성되면서, 글쓰기 전략과 고쳐 쓰기 문항이 A형과 B형에서 공통으로 출제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다소 특이한 점은 2개의 지문으로 5개의 문항이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즉 1개의 지문에 3개의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던 1994학년도부터 작문에서 한 번도 1개의 지문으로 2개의 문항 이상 출제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1지문에 3개의 문항이 있는 형태는 A형에만 출제되었고 소재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로 그동안 흔히 볼 수 있었던 ‘학생들의 독서 실태’와 겹치는 감이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는 단순히 학생들의 독서 실태가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느낌을 주었으며, 문항 또한 ‘우리 학교’의 실정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참신한 면모를 띠고 있다.

3) 문법

음운 변동, 기능에 따른 어미의 분류, 사전을 활용한 단어의 의미 파악, 의문문, 문장의 중의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문문과 문장의 중의성에 관한 문항이 A형과 B형에서 공통으로 출제되었다. 이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품사의 구별, 사동문의 특징, 높임법, 사전을 활용한 단어의 의미 파악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높임법과 사전을 활용한 단어의 의미 파악 문항이 A형과 B형에서 공통으로 출제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보다는 묻고자 하는 문법 개념이나 용어를 덜 노출시키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문법 5문항 모두가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는 점인데, 문항 자체보다는 EBS 교재에서 이론을 정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연계되었다. 문법에서 이러한 EBS 교재와의 연계 방식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도 동일하였다.

4) 독서

동물들의 길찾기 방법(과학), CT(기술), 공동 소송·집단 소송·단체 소송(사회), 버클리의 반실재론(인문), 한옥의 창호(예술)로 구성되었으며, 사회 지문이 A형과 B형에서 공통으로 출제되었다. 이것은 빛의 산란(과학), 플래시 메모리(기술), 캄피돌리오 광장에 구현된 상징적 의미(예술), 냉전의 기원에 대한 논의(인문),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사회), 읽기 과제 수행 중 사고 과정(독서 이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술 지문이 A형과 B형에서 공통으로 출제되었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볼 때 변화가 있었다. 또한 독서 이론 지문이 출제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주목할 만한 점은 5개의 지문 가운데, 사회 지문과 예술 지문을 제외하고 모두 EBS 교재에서 연계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 지문은 EBS 교재에서 핵심 개념인 ‘동물들의 길찾기 방법’을 키워드로 잡아 흩어져 있는 내용을 초점화하면서 필요에 따라 내용을 제거하거나 새롭게 첨가하면서 재구성하였다. 그러면서 18번 문항은 EBS 교재에 있던 문항의 실험 상황을 활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연계 제감도를 높였다. 기술 지문 또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초점화하였다. EBS 교재에는 뇌 영상 기술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면서 그 기술로 하나의 CT를 소개하고 있는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는 CT만을 초점화하여 확대하고 심화하여 지문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21번 문항은 CT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접근할 수 있다. 사회 지문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을 설명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보기> 장치를 사용한 것이 없어 문항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 개념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인문 지문은 EBS 교재에서 사용된 ‘세계관’과 ‘인식’이라는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새롭게 초점화하여 재구성하였다. 예술 지문은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창호를 제재로 한 것으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지문을 소화해서 문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상으로 볼 때, 독서 지문은 EBS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이에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EBS 교재에 수록된 독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장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5) 문학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희곡 총 5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전시가와 희곡 작품이 A형과 B형에서 공통으로 출제되었다. 이것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수필의 5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전시가와 수필 작품이 A형과 B형에서 공통으로 출제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다. 출제된 5개의 작품 중에서 현대소설 전광용의 <꺼삐딴 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작품 모두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이었다. 현대시 고정희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는 EBS 수능특강에서 연계되었는데, 31, 32, 33번 문항 모두 EBS 교재의 문항 아이디어, 답지로 실린 내용 요소를 활용하여 출제되었다. 특히 33번 문항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학습 활동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어서 교육 과정의 충실화라는 기본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소설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EBS 교재와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문학사적으로 전범이 될 만한 작품으로 새롭게 바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전시가 안민영의 <매화사>는 EBS N제에서 연계되었는데, 수록된 작품 그대로 지문으로 제시하고 문항은 변형되어 출제되었다. <매화사>는 B형에도 출제되었는데, 문항은 A형과 동일하게 출제되었지만 지문은 A형은 현대어로 B형은 고어로 제시되었다. 고전소설 작자 미상의

〈속영양자전〉은 EBS 수능완성에 수록된 부분을 그대로 싣고 여기에 좀 더 내용을 첨가하여 지문으로 제시하였으며 문항의 경우는 어느 정도 변형되어 출제되었다. 43번 문항의 〈보기〉에 사용된 자료는 기존 고전소설 문항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참신한 면을 보이고 있다. 희곡 이근삼의 〈원고지〉는 EBS 인터넷수능에서 연계되었는데, 수록된 부분에서 그대로 지문을 가져왔다. 문항의 경우 44번 문항은 답지의 내용 요소를 활용하였고, 45번 문항은 실험극의 특징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공통문항

독서에서는 유일하게 ‘공동 소송·집단 소송·단체 소송’이라는 사회 지문이 공통으로 출제되었다. 이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에서 과학 지문이 공통으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예술 지문이 공통으로 출제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 독서에서 공통 지문은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생각된다. 문학은 고전시가 안민영의 〈매화사〉와 희곡 이근삼의 〈원고지〉가 출제되었다. 이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에서 고전시가와 시나리오가 공통 지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고전시가와 수필이 공통으로 출제된 것과 경향을 같이 하고 있다. 고전시가 안민영의 〈매화사〉와 희곡 이근삼의 〈원고지〉는 EBS 교재에서 A형과 B형에 공통으로 수록된 작품이다. 화법의 경우 4, 5번이 공통 문항이었다. 일상적인 대화로 지문을 구성하여 화법의 특별한 유형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들도 ‘공감적 듣기’, ‘평가하며 듣기’, ‘의사소통의 목적과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기’ 등 화법 I의 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작문의 경우 9, 10번이 공통 문항이었다. 작문의 특정 유형과 관련한 심화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작문 상황을 제시하고 ‘글쓰기 방법 파악하기’,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등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유형으로 쉽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법의 경우 14, 15번이 공통 문항이었다. ‘의문문의 종류와 기능 파악하기’와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이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14번과 15번의 경우 EBS 연계 교재의 A형과 B형에서 모두 다루어진 내용 가운데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2. 난이도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 2013학년도 수능 /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의
시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와 비교	2013학년도 수능과 비교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비교
국어A형	대체로 비슷함	대체로 비슷함	약간 쉬움

몇몇 문항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등 전 영역이 대체로 평이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문항이 5개나 있음에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나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난이도를 비슷하게 예상한 것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문법 문항에 대한 내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보다 약간 쉬울 것이라 예상한 이유는 전보다 까다로운 문항이 더 출제된 것도 아니며 학생들이 그동안 EBS 교재를 많이 공부하여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졌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서는 5개 지문 중 사회 지문과 예술 지문을 제외하고는 과학, 기술, 인문 지문이 EBS 교재의 핵심 개념을 활용했기 때문에, EBS 교재와 강의로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체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었을 것이다. 문학에서는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희곡 지문이 EBS 교재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으며, 문항 아이디어나 답지의 내용 요소를 차용하여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다만 기술의 21번 문항이 상대적으로 고도의 추리력을 요구하며, 과학의 18번 문항, 사회의 25번 문항, 인문의 27번 문항, 희곡의 45번 문항 등도 주의를 기울여야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① 교과별 세부 난이도

화법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EBS 교재와의 연계가 낮다. 하지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에서 답지로 노출되었던 화법의 용어가 많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를 치루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다. 작문 또한 EBS 교재에서 다루었던 제재나 유형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 것이다. 문법은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5개 문항 모두 연계되었기 때문에 EBS 교재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문제만 풀고 이론 부분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고전할 수 있다. 독서는 사회 지문과 예술 지문을 제외하고 모두 EBS 교재에 수록된 것으로, 교재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초점화되어 재구성되었다. 따라서 EBS 교재를 볼 때 단순히 지문에 국한하여 공부하면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반드시 EBS 교재의 내용을 확장적으로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문학은 현대소설을 제외하고 EBS 교재에 수록된 부분을 거의 그대로 제시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 또한 낮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② 고난도 문제

- 21번 - 지문에서 제시한 ‘환산값’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사각형과 직각이등변삼각형의 관계, 정사각형과 직각이등변삼각형의 투과율, 기준면을 중심으로 한 도형의 이동 등을 정확하게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보기>에 도형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25번 -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나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분야를 알고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 실제로 도입된 집단 소송이나 단체 소송 분야만 알고 있다면 문항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 45번 - <보기>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 그 이면적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지문에서 ‘플랫폼’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특히 ‘플랫폼’이 지문에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데다가, 정답지가 내용만으로도 그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선지와 달라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③ 신유형 문제

- 33번 - 이 문항은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내용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기존에 볼 수 없는 형태로 학교 현장의 수업을 증시한 결과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문항은 계속 출제될 경향이 높다. 이런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과서와 수업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① 연계표

문항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문항번호(내용요소)
2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A형	27쪽	4번
3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71쪽	4번
5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15쪽	21번
6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31쪽	6번
7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A형	55쪽	2번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35쪽	54번
8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35쪽	7번
9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06쪽	1~2번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B형 실전편	106쪽	1~2번
10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06쪽	1~2번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B형 실전편	106쪽	1~2번
11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40쪽	61번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9쪽	13번
		33쪽	11번
12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13쪽	
13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33쪽	1번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A형	227쪽	15번
		84쪽	3번
14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24, 132쪽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93쪽	2번
	인터넷 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30쪽	

15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31-135쪽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39쪽	69번
16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17-118쪽	
17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17-118쪽	
18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17-118쪽	28번
19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86-87쪽	
20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86-87쪽	
21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86-87쪽	
26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13-114쪽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52-53쪽	
27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13-114쪽	
	EBS N제 국어 영역 국어 270제 A형	52-53쪽	93번
31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A형	228-229쪽	
32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A형	228-229쪽	
33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A형	228-229쪽	
38	EBS N제 국어 영역 국어 270제 A형	114쪽	226~227번
	EBS N제 국어 영역 국어 270제 B형	114쪽	226~227번
39	EBS N제 국어 영역 국어 270제 A형	114쪽	226~227번
	EBS N제 국어 영역 국어 270제 B형	114쪽	226~227번
40	EBS N제 국어 영역 국어 270제 A형	114쪽	226~227번
	EBS N제 국어 영역 국어 270제 B형	114쪽	226~227번
41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20~121쪽	
42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20~121쪽	
43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20~121쪽	
44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A형	184-187쪽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B형	192-194쪽	
45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A형	184-187쪽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B형	192-194쪽	

② 체감 연계도

화법, 작문, 문법에서는 EBS 교재의 문항 출제 요소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 출제된 문항들이 많았으며, 독서에서는 5개의 지문 중에서 3개의 지문이 연계되었으며, 문학에서도 5개 작품 중에서 4개 작품이 거의 그대로 연계되어 출제되었기 때문에 체감 연계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문항 또한 EBS에 수록된 문항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설계되었거나 답지의 내용 요소를 재구성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EBS 교재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체감 연계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③ 연계유형별 세부 분석

(1) 개념/원리 활용

- 대표 문항 : 12번, 14번, 15번

12번 문항은 용언의 어미의 기능에 따른 분류에 관한 것이고, 14번 문항은 의문문에 관한 것이고, 15번 문항은 중의문에 관한 것으로, 이 문항들은 모두 EBS 인터넷수능 교재에서 제시한 문법의 개념이나 원리가 문항으로 설계되었다. 문법 영역에서 이런 개념/원리를 활용한 연계는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자료/상황 활용

- 대표 문항 : 11번, 13번, 18번

11번 문항의 <보기> 내용은 EBS N제 40쪽 61번 문항의 <보기>를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것이고, 13번 문항은 EBS 인터넷수능 227쪽 15번이나 EBS 수능특강 84쪽 3번 문항의 사전 사용의 상황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고, 18번 문항은 EBS 수능완성 118쪽 28번 문항의 상황을 활용한 것이다. 이런 식의 자료/상황 활용을 통한 연계는 여기에 제시한 것 이외에도 상당수 된다.

(3) 문항의 축소 / 확대 / 변형

- 대표 문항 : 31번, 32번, 44번

31번 문항은 EBS 수능특강 229쪽에서 ‘윗글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1번 문항을 ‘윗글의 특징’으로 살짝 변형한 것이고, 32번 문항은 EBS 수능특강 229쪽에서 ‘윗글의 시어를 이해한 내용’을 물어보는 2번 문항을 ‘[A]와 [B]에 대한 이해’로 축소하여 변형한 것이고, 44번 문항은 EBS 인터넷수능 186쪽의 1번 문항과 187쪽의 2번 문항을 합쳐서, 즉 확대하여 변형한 것이다. 문학의 문항일 경우 이런 축소/ 확대/ 변형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4. 대표 연계 문항

- 1) 11번 : EBS N제 40쪽 61번 문항의 <보기>의 내용을 변형하여 출제하였다. 하지만 가장 기본 개념인 ‘교체·탈락·첨가·축약’ 등의 음운 변동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정답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보기>에서의 기본 개념을 직접적으로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1번 문항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40쪽 61번 문항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변동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음운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바뀌는 현상을 음운 변동(變動)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의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 ㉠ 교체: 한 음운이 수적인 변화는 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 ㉡ 탈락: 한 음운이 단순히 없어지는 음운 변동
- ㉢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음운 변동
- ㉣ 축약: 인접한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 그런데 이러한 음운 변동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깨끗하다'를 발음할 때의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깨끗하다 → [깨끗하다] → [깨끗하다]

(a) (b)

- | | | | |
|-----|-----|-----|-----|
| (a) | (b) | (a) | (b) |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

11.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 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가랑잎[가랑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값지다[갑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열차[그팩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서른여덟[서른너덜]'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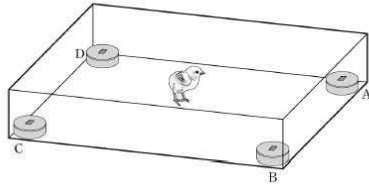
2) 18번 : EBS 수능완성 118쪽 28번 문항의 상황을 활용한 것이다. EBS 수능완성에서는 지문의 내용을 실험이라는 상황을 통해 철새의 이동 경로를 물었다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항은 먹이를 찾는 실험 상황을 통해 병아리의 이동 경로를 물었다. 이 문항은 지문의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문의 원리를 특정 실험 상황에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8번 문항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18쪽 28번 문항

1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서 병아리가 보일 행동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병아리가 제정위 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징만을 활용한다고 가정하자. 아래 그림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먹이는 A에만 있다. 병아리가 A, B, C, D를 모두 탐색하여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학습하게 한 후, 상자에서 꺼내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를 상자 중앙에 놓고 먹이를 찾으려 한다. 이와 같은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여 병아리가 A, B, C, D를 탐색하는 빈도를 측정한다.



- ① A를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② A, B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C,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③ A, C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D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④ A, D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 C를 비슷한 정도의 낮은 빈도로 탐색한다.
- ⑤ A, B, C, D를 비슷한 정도의 빈도로 탐색한다.

- 28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 실험을 이해할 때, <보기>의 ㄱ~ㄴ 중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3점]

철새 A는 가을이면 남미 지역으로, 봄이면 북미 지역으로 이주하며, 북쪽 하늘의 거의 고정적인 위치에 있는 북



극성을 기준으로 삼아 밤에만 이주한다. 조류학자 B는 남미와 북미의 중간 지점에서 깎때기 모양의 새장을 만들어 사방이 넓게 트인 들판에 놓고, 그 안에 철새 A를 넣었다. 그리고 새장 바닥에는 잉크판을 놓고 옆면에만 종이를 대었다. 즉, 하늘을 볼 수 있는 철새 A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려 할 때마다 종이에 발자국이 찍히게 한 것이다.

<보 기>

이 실험에 대해 이해할 때, 윗글에 제시된 메커니즘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 ㄱ. 맑은 가을밤에는 주로 새장의 북쪽 방면 종이에 발자국들이 찍히겠군.
- ㄴ. 맑은 봄밤에 새장을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면 종이 전체에 비교적 고르게 발자국이 찍히겠군.
- ㄷ. 이주 시기이더라도 구름이 별들을 가린 날 밤에는 찍힌 발자국들이 일정한 방향을 나타내지 않겠군.
- ㄹ. 이주를 시도하는 동안 철새 A의 생물학적 시계가 작동하여 발자국이 점차 다른 방향으로 찍히겠군.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